

# “한 길 묵묵히 걸어 보게나”

단청장 만봉(萬奉) 스님. 올해 97세가 된 스님은 여전히 손 떨림 하나 없이 탱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숨을 고르면서 보여주는 붓놀림이 섬세하면서 예사롭지 않다.

1999년에 만나 뵈었을 때도 작업에 여념 없었던 만봉 스님은 지난 7년이란 시간을 한 걸음에 뛰어넘은 듯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림 삼매에 들어 있었다. 97세라는 나이에도 안경도 안 쓰고 신문을 보는 모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요즘 스님은 석가모니불 상단탱화를 그리고 있다. 밀려드는 작업 요청에 잠시도 쉬 틈이 없는 스님은 기자의 요청에 마지못해 붓을 놓았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작업을 한다. 스님은 밀그림인 초(草)에서부터 부처님 상화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독려하며 전 과정을 손수 그리고 있었다. 특히 20여명에 달하는 불·보살·신중의 얼굴은 스님 몫이다.

“아무래도 예전보다야 힘들지. 생기나면 작업을 참 열심히 해, 붓을 칠 수 없는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쁜 날도 있지. 일할게 많은데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안타까워.”

스님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 늦게 잠자리에 들 때도 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 6시에 일어나서 아침공양을 하는 스님은 방송뉴스와 신문을 꼼꼼히 살펴본다. 제자들이 ‘뉴스마니아’라고 부를 정도로 스님은 뉴스를 좋아한다. 시사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 이웃의 가슴 아픈 사연이야말로 스님에게는 큰 관심사이다. 스님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같이 놀라고 같이 걱정하는 보살의 마음 그대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듯 했다.

오전 10시, 스님의 화실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만봉 스님 (단청장)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만봉 스님.



스님이 쓰는 갖가지 도료와 붓.

###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 탱화”

### 제자 셋과 온종일 작업… “곰 같이 느긋하게” 강조

인 작업 열기가 피어오른다. 붓끝에서 살아나는 불보살들의 세계. 색색의 화려함이 밀그림을 덮어나간다.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내리 두 시간은 ‘초인적’으로 몰두한다.

간혹 제자들의 질문이 날아들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몸소 시연까지 보여주며 지도해준다. 꼼꼼하게 제자들의 미진한 점들을 지적하는 스님은 자못 엄하다. 그렇게 엄한 스님도 쉬는 시간에는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오전 작업 후 잠시의 휴식과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나서 1시 30분부터 다시 작업에 들어간다. 스님의 작업은 2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3시 30분경 다담 시간으로 한숨 돌리고 다시 6시까지 붓을 든다.

“부처님 그리는 것은 한두 번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주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2-3년 하고 더 진득하니 작업하지 않고 가 버리지. 자만만 그리면서 익숙해져야 하는데... 여러 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천 장씩 그려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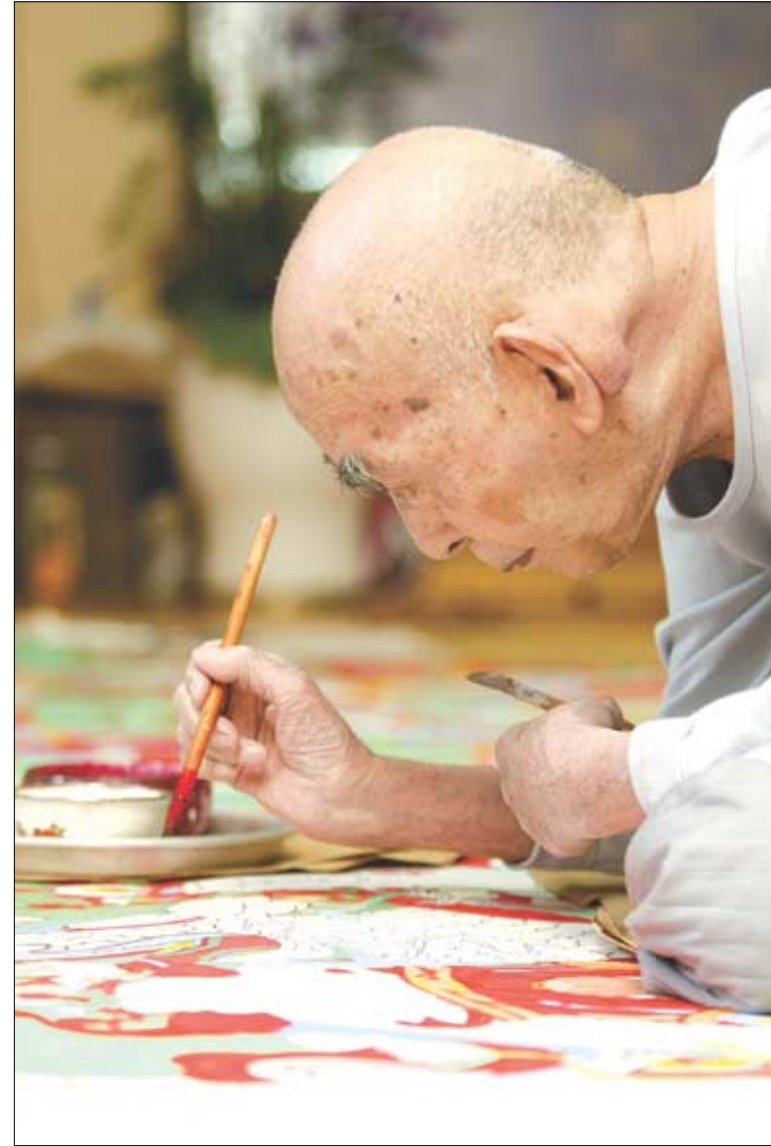
스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탱화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쉽게 실증한다며 스님은 “그림 그리는 마음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 참지 못하고 장사꾼처럼 굴면 안 돼”라고 말한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기에 얼마 전에는 엉덩이에 종기까지 생겼다. 그러나 처음엔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다. 작업에 방해된다고 스님이 아픈 것을 숨겼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스님이 아픔을 토로했을 때는 수술을 해 종기를 도려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고령인 스님에게 수술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약물치료를 했다. 보름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스님은 매일 하는 관음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도를 그려달라는 불자들이 많아. 참 좋은 일이야. 직접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요즘같이 힘든 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스님은 틈만 나면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윈다.

요즘 스님은 신선도를 많이 그리신다. 제자들로부터 “우리 스님 신선 되시려고 그린다”는 농담만 진담반의 말을 들으면서도 말이다. 올 가을엔 작업한 불화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계획 중이다. “매년 전시회는 빼놓지 않고 하고 싶어. 지난해 작업한 것도 있고, 한 70여 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날짜랑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 꼭 해야지.” 스님은 밀려오는 불화요청 속에서도 개인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으뜸 가르침은 무엇일까? “곰같이 느긋해야 탱화할 수 있어. 잔재주 많은



일단 작업에 임하면 고박 두시간은 몰두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97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낀다.

토끼는 탱화를 할 수 있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스님은 제자들이 잔재주나 부리는 토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제자들에게 곰이 되기를 가르친다.

스님에게 불모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꿈꿔본 적은 없는지 물었다. “다른 것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 길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고... 한눈팔지 말고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해. 불자들도 믿고 노력하고 꾸준히 수행 해야지.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야. 한 길 묵묵히 가면 거기서 우주의 진리도 보이는 법이야. 옳은 일 열심히 해야 해.” 스님은 어떤 방법의 수행도 성불로 가는 길이라는 데서는 틀이 아니라며 꾸준히 정진하는 삶을 거듭 강조했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는 거지 뭐.”  
글=김지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70여년 불화작업 혼신

**만봉 스님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16년 불원사로 출가한 스님은 지금도 신촌 불원사에 주석하고 있다. 여덟 살 때 금어 예운 스님의 제자가 돼 단청과 인연을 맺었다. 24년 불교전문강원을 수료하고 1926년 금어 자격을 취득했다.

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된 이래 태고종 서울교구 종무원장, 불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1998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끊임없이 불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은 2004년 불국사 석굴암의 의뢰로 가로 2m 세로 7m 크기의 괘불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자에게는 지상하면서도 엄하게 가르친다.

## 방생과 성지 순례의 도량 화마(火魔)도 비켜간 영험의 도량



천연기념물 223호 은행나무

영국사는 5점의 보물과 천연기념물(은행나무) 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있는 천년고찰로서 낙산사와 더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뻔 한 도량이었으나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화마가 도량을 비켜간 신비의 도량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태산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번지 종무소 043)743-8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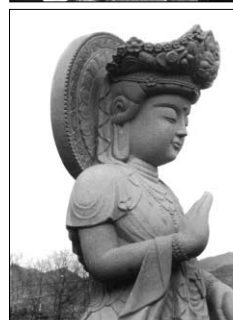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지



석재조각의 대가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 뭐든 잔꾀 부리지 말고 해야 결실

## 만공 스님의 가르침

하루 종일 화실에서 불화에 매달려 사는 탓에 불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

다. 법문 같은 것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니 화두니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나한테 주어진 그림을 잘 그리려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시간 외에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기쁨을 베풀어주는 보살이에요. 인간의 고통을 항상 살피주고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보살이기도 하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불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저는 탱화를 그림 때 관세음보살도틀 많이 그림니다.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도틀 보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단청과 불화는 신심이 밑바탕이 된 정성이 제일입니다. 불화나 단청 작업을 하는 동안 늘 부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 역시 불화를 많이 보면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옛 불화나 단청을 보세요. 세월 때문에 빛은 바랬어도 며칠 전에 그린 듯 생생한 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운은 지극한 신심으로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혼이 배지 않으면 아무리 잘 그렸어도 죽은 그림일 뿐입니다.

흔이 배게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그리고 신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수행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자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면 허망하게 사라져

불법 만난 인연 소중한 여기고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불자들의 지극한 신심과 노력이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새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절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만큼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이들은 다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부와 명예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는 인생의 전부라 될 수 없어요. 또 그것이 사람의 심성을 그릇되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 생에서 그 결과를 볼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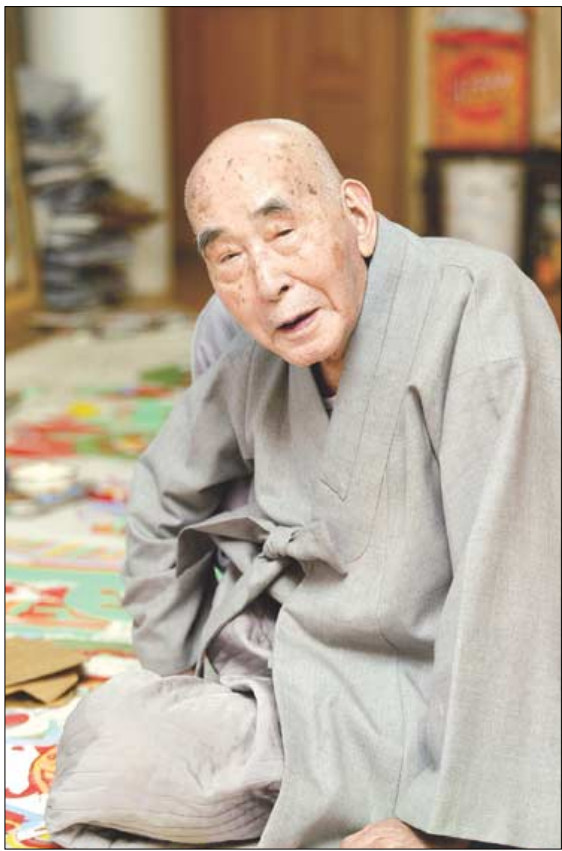
제게도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도움을 바라는 이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면 허망하게 두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제 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탱화 하나 멋지게 작업해서 이름을 남기겠다는 욕심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어로서 어떤 불사에 동참하여 많은 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공덕으로 여깁니다.

신심으로 정성껏 작업한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발심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의 환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서 단청이나 불화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장엄스런 부처님 세계를 엿보는 것도 불자의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청이나 불화 그리는 일도 치열한 수행입니다. 수천 번의 초를 그리고 그 필력을 스스로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이라 여기며 하는



무슨 일든 '일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꾸준히 해야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만공 스님.

것도 아니라면 겁니다. 일이 아니게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꾸준히, 의심 없이 잔꾀 부리지 않고 해 나가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도 꼭 들어맞는 이치입니다. 크건 작건 따질 필요도 없이 오로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계산은 털어버리고 스스로의 행업을 가식으로 타락 시키지 않도록 언행일치를 해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요새 자주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일을 한다'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공사를 마구 해 온 업보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많이 맡아서 많은 댓가를 받고 빨리 해주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발생된 하자가 있으면 그림 뇌물로 해결해 버리니까 더 큰 문제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한 생명을 잊아가는 대행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은 매일매일 느끼지만 그만큼이나 나약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만 머리에 가득 채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발심이 아무리 장해도 행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 발심은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갑니다. 귀하고 귀한 부처님법을 부처님과 만났으니, 무조건 복을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무량의 선업을 닦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타행을 하고 수행하고 신심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0>



### 세상의 독기를 마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성 안의 다른 종교인들이 대궐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보시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극약처방을 내렸 습니다.

“우리를 독실하게 믿는 시리굴 장자더러 부 처를 집으로 초대하게 합시다. 집안에 큰 불구 덩이를 만들어 부처와 그 제자들이 밭을 집안으 로 내달는 순간 타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속에는 독을 넣어서 불구멍이를 피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순간 숨통이 끊어지게 만듭시다.”

시리굴 장자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 뒤에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부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장자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필사적으로 맞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약속한 일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기에 부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달래주며 장자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만

로 고백하고 이렇게 청하였습니 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와 제자들은 결코 남의 해침을 받지 않 는다. 그대는 이미 마련해놓은 음식을 차려내 오너라.”

장자가 떨리는 손으로 독이 든 음식을 내오자 부처님은 조용히 계승을 읊으셨습니 다.

“성스러운 부처와 법과 승가는 세상의 독기를 죽인다. 세상의 독이란 탐욕과 성냄, 그러나 어려에게는 영원히 죽기가 없으니 성스러운 삼 보는 독기를 죽인다.”

이렇게 계승을 읊고 나서 그 음식을 드셨습니 다. 하지만 독이 든 음식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의 몸에 들어가 아무런 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 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시리굴 장자는 부처님 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부처님께 독을 베풀어 큰 과보를 얻 을지언정 그릇된 견해에 빠진 자들에게 단 이슬 을 주어 그 죄를 받지는 않겠습니다.”(증일아람 경 41권 마왕품)

세상에는 탐욕과 성냄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빨리 그 독에 면역이 되어야 세

## 우리가 쏟아낸 탐욕과 이기심에 절은 세상의 독 덜덜 마셔버린 한 수행자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 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앞서 가지 말고, 나보다 먼 저 음식을 먹지 마라.”

장자의 집 앞에 도착하신 부처님. 막 발을 들 어 문턱 위에 올려놓는 순간 불구덩이는 저절로 맑은 물이 가득 찬 못으로 변하였고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은 가볍게 허 곁으로 넘어왔었고 허공을 밟는 자취마다 연꽃 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뒤를 돌아보고 제자 들을 향해 연꽃을 밟고 들어오도록 일렀습니다.

시리굴 장자는 은연에서 발어진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 시무시한 음모에 넘어갔는지를 깨달은 장자는 이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였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미려를 뉘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부 처님을 해쳐려 하였습니 다.”

부처님의 용서를 받긴 했지만 시리굴 장자는 다음 일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부 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려야 할 음식에 전부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사실대

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온화한 정신 으로는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지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적당히 욕심과 성냄에 물들고 타락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당신도...

독이 든 음식을 기꺼이 삼킨 부처님은 오히려 독기를 쫓았던 이를 교화할 수 있었고, 혼돈의 뱀이 내은 독이 세상에 퍼지기 전에 죄다 삼켜 버린 청경관세음보살은 얼굴과 목이 파랗게 변 한 것으로 그만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의 수행 자가 극단적인 탐욕과 이기심에 절은 세상의 독 기를 덜덜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켜우는 음식도 거부하고 생명을 되돌릴 치료조차도 거부 한 스님은 바짝 마른 낙엽 같은 몸으로 백기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힘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의 단식은 대중의 관심과 아군 을 끌어 모으지만 저 '흔스름과 힘없고 불품없 는' 한 수행자의 단식은 냉소와 손가락질을 살 켜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려니 그런 내가 무서 워집니다. 스님이 삼켜버린 세상의 독 속에는 내 것도 들어있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대학교 역경연구원)

### 사찰 연등 및 전선(범등용) 불지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분리형**

**일체형**

**불지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일렁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탐침이 행사용 청사조명 및 초롱 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년 新 製 品

삼보귀의 하움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변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의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삭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삭향 양초의 특징**

-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③ 천연약삭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삭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썩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 약삭향양초 1호(돈다대) 5.6cm × 27cm 연소시간 약 10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 약삭향양초 2호(밀대) 4.6cm × 25cm 연소시간 약 4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 약삭향양초 3호(돈다대) 3.4cm × 22.5cm 연소시간 약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cm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 ① 그늘음이 없습니다.
-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그늘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이상 • 2호 59cm × 13cm 연소시간 약 50시간 이상  
 •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접촉 7시간 이상(물에 띄워서 사용가능)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맥스로 주수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샘플컷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